

광주미술의 과거·현재·미래 망라... '청류탁세' 전

清流擢世

광주미술상 창립 30주년 기념

18일 ACC 문화창조원서 개막식 내년 2월1일까지 65점 작품 선배 한국화·서양화·조각·서예 등 다채

광주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미술단체 '사단법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위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청류탁세(清流擢世)'전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 1995년 회화, 조각, 서예 등 광주미술 발전을 위해 모인 각 분야의 원로·중진 미술인들이 후배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다. 창립 후 30년간 선배 작가들이 마련한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시상을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는 '광주미술상'은 지역 청년작가의 꿈이자 긍지로 불린다. 30년간 한국미술의 발전과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화, 수묵화, 조각, 판화, 설치, 영상, 뉴미디어, 정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전통의 계승은 물론 미래를 향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지역미술의 전형을 따라 남도 구상미술양식과 탐미적 유형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예술 개념과 표현형식, 활동 방식들이 더 다채로워졌다는 평가다.

또한 역대 수상 작가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조직의 건전성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상자를 배출하며 그 위상과 전통성을 견고히 하고 있어 광주를 대표하는 미술 자산이라 불릴 만하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청류탁세'는 '맑은 물로 탁한 세상을 깨끗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역대 수상 작가 전원과 운영위원 총 65명이 참여해 한국화·서양화·조각·판화·미디어·서예 등 전 장르에 걸친 6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전시가 펼쳐진 공간에서 광주미술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건탁 작 '비어가는 인생길'.

각·판화·미디어·서예 등 전 장르에 걸친 6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전시가 펼쳐진 공간에서 광주미술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미술상'은 전남일보와도 인연이 깊다.

지난 1992년 강연회 화백이 '금호예술상' 수상 상금 500만원을 어려운 여건의 후배들을 위해 기금으로 내놓은 것을 받

단으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만들어가자는 데 뜻이 모아졌다. 이후 1993년 11월 동료 선배 작가 23명이 발기인모임을 시작했고 점차 동참하는 작가들이 늘어나 1995년 2월 작가 46명의 작품으로 첫 기금마련전을 열었다. 당시 이정일 전남일보 사장이 전시 작품 48점을 일괄 매입하면서 1억원의 자금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이자수익으로 그해부터 시상제를 시작하게 된다.

오건탁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이사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95년 명확한 계기가 없었다면 창설되기 어려운 상이 원로 미술작가들의 노력과 이정일 전 전남일보 사장의 도움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후 '광주미술상' 수상자 중 세계적인 작가가 배출되는 등 지역 미술계의 기폭제 역할을 해 왔다"며 "전시 기간 꾸준히 많은 관객이 찾아 광주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이난영 작가, '소녀들'...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 희곡 당선

불의에 맞선 여성들의 항거 다뤄 내년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작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 희곡 공모에 이난영(사진) 작가의 '소녀들'이 당선됐다.

광주시립극단은 앞서 지난 7월5일부터 10월25일까지 지역 소재 이야기거리를 발굴해 대표 레퍼토리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희곡 공모를 진행했다. 총 13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11월4일부터 11월28일까지 진행된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당선작으로 '소녀들'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소녀들'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 아버지를 둔 집안의 형제들이 갈등하고 변화하며 결국 성장하는 이야기다. 불의와 강압적인 시대에 대한 여성들의 항거라는 주제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소재로 담은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을 "극 구성이 탄탄해 서사 전달력이 좋고, 인물 형상화가 탁월하다"고 평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0년 부산일보 신춘



문예에서 '일등금인간'으로 등단했다. 이후 전국창작희곡공모 금상, 베스트 연극상, 전국연극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투견', '그 집 여자', '웃으며 안녕' 등이 있다.

이 작가는 "소녀들"은 1929년 11월3일 일요일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의 중심에 있던 광주여고보 독서모임 '소녀회'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을 쓰면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진실에 눈을 뜨고 연대했는지, 어떻게 탄압에 맞섰는지를 주목했다"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식민의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보통 사람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깨우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당선작 '소녀들'은 2025년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박찬 기자

문화통plus 겨울호 발간

사단법인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문화통plus(발행인 지형원)의 겨울호가 출간됐다.

통권 53호로 발행된 이번 호에서는 한강의 노벨문학상과 관련해 편집자 논평인 '광주에 노벨문학상 기념관을 만든다면'에서 광주시의 노벨상 사업을 다루고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라는 지명이 세상을 피한다는 '피서리(避世里)'에서 유래됐음을 전라도문화수수계기를 통해 풀어낸다.

특집으로 '광주 최초' 저자로 알려진 김경수 문학박사가 쓴 '광주 이야기'와 '운주사가 천불전탑(千佛天塔)'이 아니라 천상의 법회를 지상에 펼쳐놓은 천불전탑

(天佛天塔)의 절집이라고 색다른 주장을 실었다. 또 여성극단 예인들이 삶과 예술을 재조명해 화제를 일으킨 드라마 tvN 12부작 '정년이'에 얽힌 사연과 뒷얘기를 긴급히 다뤘다.

조용현 칼럼니스트의 '이 동네서 소설 자랑하지 마라'와 노영대 변호사의 '소멸하는 것은 하도록 두어라 그 끝에서 뭔가 꿈틀거리지 않겠느냐' 등도 이번 호에 실렸다.

이 밖에도 음식으로 읽는 문화 '마늘'에 관한 해박한 지식자들의 해석과 현재 사라져 가는 '대갱이 무침'을 다루며 전라도 음식 문화를 재조명한다.

박찬 기자

ACC, 융복합 미디어아트 전문가 워크숍 '성료'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Ⅳ'

아시아 15개국 창작·기획자 참여 "문화예술 허브 역할 강화할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Ⅳ'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ACC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ACC 및 국내 문화예술기관(광주, 서울 등)에서 아시아 지역의 잠재력 있는 창작자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Ⅳ(융복합 미디어아트)'를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의 4번째 시리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융복합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중국, 일본, 홍콩, 필리핀, 파키스탄, 대만,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 15개국 융복합 미디어아트 분야 창작자와 기획자 25명을 선발해 진행됐다.

워크숍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CC의 전시, 공연, 레지던시와 광주지역의 미디어아트 사례에 대한 강의와 현장 체험



지난달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Ⅳ' 강연 현장.

ACC 제공

을 비롯해 서울, 부산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현장 체험과 각 기관 전문가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해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최신 융복합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사례와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아시아의 미디어아트 발전 현황을 나누는 글로벌 소통과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또 이번 워크숍의 사례 연구 중 하나로 현재 ACC에서 전시하고 있는 '달리버리댄서의 선: 인버스'의 김아영 작가 강의가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13일 '제10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명품의 비밀'... 음악공연·체험 성인 관람객 위한 과학문화 행사

국립광주과학관은 '명품의 비밀'이라는 테마로 성인들을 위한 행사 '제10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을 13일 개최한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성인 관람객들을 위한 국립광주과학관의 대표 행사 중 하나로 과학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 성인들의 과학에 대한 친근감 증진 및 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과학문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제9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에서 참여자가 막걸리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이번 행사는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다이닝 △천체투영관에서 '명품

브랜드 탄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지식 콘서트 △전문가와 함께 명품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명품감정 클래스' 체험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수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연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Advertisement for Jnilbo, including the logo, social media handles (@jnilbo,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and a QR code.